계엄 사태와 광장의 젠더

모름지기 글을 쓰는 사람이라면 상투적인 표현을 경계해야 마땅하나, 2024년은 참으로 다사다난했다는 표현을 고를 수밖에 없다. 의미 있는 혁신과 개혁이 이루어지지 못함에 따라 절망이 희망을 잠식해 재난과도 같은 일상이 '뉴노멀'이 되더니만, 급기야 2024년 12월 3일 밤에 계엄이 선포되고 이후 날마다 믿을 수 없는 소식들이 들려왔다. 이런 시대에 창작자는 어떻게 버틸까 걱정이 될 만큼, 넷플릭스 드라마보다 더 '스펙터클'한 사건이 펼쳐졌다. 많은 연구자들은 속도를 올려 마무리하던 자신의 논문이 뉴스보다 더 재미없는 것 같아 열정이 식고, 또 지독히 부조리한 시절에 글이 너무 잘 쓰이는 것이 수치스러워 글쓰기를 중단했다. 어쩐지 SF의 배경 같기만 한 2025년을 앞두고 있지만, 계엄 선포와 총 든 병사의 모습은 역사가 진보한다는 믿음을 비웃듯이 퇴행적이기만 했으니 모두 제정신일 수 없었다.

다행스럽게도 광장은 역사는 계단식이 아니라 나선형으로, 즉 비록 더디지만 끝내는 답답한 국면들을 돌파하며 앞으로 나아간다는 점을 확인시켜 주었다. 죽어도 죽지 않은 역사의 좀비 혹은 유령들이 유신의 시절을 그리워하고 모방함으로써 시대의 '빌런'으로 등극해 국민에게 실의와 절망을 선사했다. 그러나 마치 구원자처럼 화사하고 유머러스하고 얼마간 유치한 응원봉을 들고 나타난 20-30의 젊은 여성들이 광장에 출현해 캄캄한 그림자에 잡혀 먹힐 것만 같은 사람들과 시대를 구조해 주었다. 제2차 계엄이 준비되고 있다는 흉흉한 소문을 비웃듯이 시원한 선창과 구호 그리고 춤사위로 광장을 활기찬 축제의 공간으로 만들어 공포와 우울의 정동이 우리의 몸에 들러붙지 않게 해 준 것이다. 86세대 엘리트 남성들이나 남성 노동자들이 주도했던 광장은 응원봉을 든 여성들에 의해 퇴장했다. 광장의 젠더가 새롭게 변화하는 이러한 사건은 그 자체로 흥미로운 연구 주제가 되어 줄 뿐 아니라 앞으로 한국문학에 대한 페미니스트 연구를 더욱 독려하고 부추길 것으로 예측된다.

〈여성문학연구〉 63호는 2010년대 중반을 즈음으로 이루어진 한국

문학 장의 페미니즘리부트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듯하다. 한국연구재단 등재 학술지들의 수가 상당한 데도 불구하고 많은 논문들이 투고되어, 심사를 통과한 논문(일반/특집) 12편, 서평 1편, 추천 석사논문 1편이 수록되었다. 이번 특집 코너에는 '번역과 젠더'라는 주제로 총 5편의 논문이 수록되었다. 한강이 맨부커상과 노벨문학상을 받으면서 번역 연구와 젠더 연구는 중요한 연구 주제로 대두했다. 이 두 키워드는 공히 기존의 권력체제에 문제를 제기한다는 점에서 주목을 끈다. 먼저, 번역연구는 원전과 번역 사이에 존재하는 위계적 서열, 즉 원전은 투명하기만 한 의미의 저장소이고, 번역은 단순히 원전의 의미에 복종하고 그것을 독자에게 전달하는 봉사 기계라는 식의 원전/번역 간의 암묵적 전제에 도전하며 원전/번역본의 관계를 대등하고 평등하게 볼 필요를 제안한다. 젠더연구 역시 남성/가부장을 지식과 의미 생산의 진정한 주체로 설정하고, 여성의 경험과 문화를 사소하거나 무질서한 것으로 취급해온 남성중심적 의미체계와 위계 구조에 맞선다.

특집의 첫 번째 논문인 황인순의 「1900년대 고전서사 속 번역된 여성 형상-서영해의 설화집을 중심으로」는 서영해의 설화집을 중심으로 하여 1900년대 초 서구 언어로 번역된 고전서사들과의 비교를 통해 번역자 서영해의 문제의식과 독특성을 밝히고 있다. 또한 김미지의 「아우구스트 베벨의 〈여성과 사회주의〉 번역의 역사와 담론 연구」는 동아시아에서 사회주의 여성해방론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친 아우구스트 베벨의 『여성과 사회주의』의 번역의 역사를 살펴봄으로써 번역 실천의 문제점과 한계를 짚어보고 있다. 세 번째로 수록된 이지은의 「'갈라진 혀'의 노래-일본군 '위안부' 증언의 혼종성과 번역의 문제」는 전쟁에 대한 피해자의 증언은 국민국가의 공식언어로 균질하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문제의식 하에 일본군 '위안부' 증언의 혼종적 성격을 드러내고, 혼종적인 언어가 다시 신·구제국의 언어로 번역되는 양상을 분석하고 있다. 성현아의 「김혜순 시의 영미권 번역에 나타난 여성성 연구」는 최근 들어 세계적인 관심을 받고 있는 김혜순의 원시와 번역본과의 비교를 통해, 영어로 번역될 때 시적 정황과 발화 주체가 명료해짐으로써 젠더 폭력의 양상이 구체화되지만, 김혜순이 의도하는 혼종적인 존재들이 실천하는 '-하기'의 수행은 희미해지는 경향이 생겨난다는 점을 짚는 등 여성성과 번역과의 상관성을 탐구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이행미의 「번역의 수

행성과 젠더 재현의 역학」은 캐런 버라드의 행위적 실재론을 활용해 웹툰 「언니, 이번 생엔 내가 왕비야」가 영어로 번역되는 과정에서 어떻게 젠더 재현이 변화하며 새로운 문화적 의미를 생성하고 있는지 분석하고 있다.

63호에는 특집 외에도 일반논문으로 한국여성문학 연구의 스펙트럼이 다양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많은 논문들이 수록되어 있다. 서경희의 「〈전우치전〉의 여성 재현 방식과 의미」는 우리에게 친숙한 고전소설 〈전우치전〉에 등장하는 여성 인물의 재현 양상을 통해 비판적으로 읽되, 단순한 이분법에 만족할 수 없는 급진적 측면을 복합적으로 읽어내고 있는 논문이다. 민선혜의 「김말봉의 『별들의 고향』에서 나타난 공창폐지운동과 이념의 분열」, 박홍매의 「양공주 서사에 나타난 잔인한 낭만-최정희의 〈끝없는 낭만〉 작품론」, 박진영의 「펄 벅의 전후 아시아 여성과 혼혈 상상」은 한국여성문학(문화)사에서 거의 암흑기처럼 취급되어 적극적으로 연구되지 못했던 1950-60년대 연구에 한창 물이 올랐음을 보여주는 논문들이어서 독자들이 묶어서 읽어보기를 권한다. 또한 이명호의 「1990년대 여성문학-환멸과 각성의 교차로에서 길어올린 여성 주체, 여성 글쓰기」, 이혜령의 「21세기 한국의 연쇄살인범 서사 또는 (저)개발의 지리적 상상력-영화 〈살인의 추억〉(2003)과 드라마 〈괴물〉(2021) 겹쳐 읽기」, 강남규의 「김멜라 소설에 나타난 '삶-죽음'의 퀴어 시간성」은 여성문학 연구가 오래된 것만을 연구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학문의 보수주의를 넘어서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와 뜨겁게 소통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흥미로운 연구들이다.

한국여성문학학회가 차세대 주목할 만한 연구자를 찾아 소개하는 추천 석사 논문도 일독을 권한다. 최새흰은 「1990년대 한강 소설의 정신장애여성 재현 연구」는 1990년대에 발표된 한강의 소설을 '정신장애여성' 재현에 초점을 두어 읽고 있다. 이 논문은 세계적인 작가로 부상했지만 그간 충분히 주목받지 못했던 한강의 초기 소설에 대한 뜻깊은 연구이기도 하지만 '미친 여성'은 이른바 가부장제 정상성의 경계 밖에 있는 여성들을 재현하는 흔한 방식이라는 점에서 여성문학 연구에 유의미한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유가은의 「행복의 책임과 느낌의 공동체」는 가족을 기본값으로 돌봄 문제를 보는 좁은 인식틀을 벗어나 다양한 방식의 재생산 실천을 보도록 요청하는 알바 갓비의 『친밀한 착취: 돌봄노동』에 대한 서평이다. 당분간 '커먼즈'나 '돌봄' 같은 키워드는 여성문학 연구자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을 것으로 보이므로, 독자 여러분께 서평도 필독해보시라고 권한다.

편집부